

20살 된 전국교수노조, ‘법적지위’ 첫발… “대학개혁 앞장”

20년동안 법외노조로 활동 제약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법적근거 마련… 3차 설립신고
“대학 위기… 교육재정 늘려야”

출범 20년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5일 법적 지위를 위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대학 공공성 강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노동조합 설립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노조는 앞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와 비정년 트랙 전임교수 양성 정책 철폐, 대학 무상교육, 학벌 사회 타파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설립 20년 만에 ‘법적 지위’ 첫발

교수노조는 대학 교원 권익 보호와 대학교육 개혁,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1년 설립됐지만, 법률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이른바 ‘법외노조’



출범 20년을 맞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5일 법적 지위를 위한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노동조합 설립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

로 활동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교수노조는 합법화를 위해 2015년 4월 2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행법상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어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12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 설립을 불허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결권을 인정받게 됐다.

노조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지난해다. 지난해 5월 20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교수노조는 “오늘은 교수노조가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법적으로도 실질적 지위를 획득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교수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헌법이 인정하는 교수노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교수 간 불평등 심각…“교수 권익 보호 힘쓰겠다”

이날 교수노조는 교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얘기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기본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2만1107명으로, 전년 대비 6만3423명이 증가했다. 증가한 교원에서 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6.2%로, 총 6만987명이다. 1년 새 교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강사 신분이라는 의미다.

교수노조는 “특히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연구실적, 교육실적, 학생취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평가와 경쟁을 앞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해왔다”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 교수 임용을 늘리면서 교수 간 차별과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을 늘려 대학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고,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 속에서 계급·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대학교육재정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노조는 “열악한 현실에 맞서 교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노동인권교육 영상으로 흥미롭게 배운다

서울시교육청, 중·고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영상 제작·보급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응답하라! 노동인권!’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자료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전태일 따라 걷기’ 3편과 서울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G밸리 미래 보기’ 3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전태일 따라 걷기’는 평화시장과 명

보다방, 창신동 봉제공장, 전태일기념관 등 청년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체험하는 내용이다.

‘G밸리 미래 보기’ 교육 자료는 한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구로역인력시장,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등을 간접 경험하면서 구로공단이 미래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 과정을 살펴본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기존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학생과 전문 진행자가 출연

하는 탐사예능 방식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흥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청에서 2018년 실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결과 응답자 38.6%가 기존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재미없다·지루하다’고 응답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의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성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뺨통 더위 속 ‘아지랑이’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진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 한강철도교 등 ‘이달의 문화재’ 선정

조계사 석가불도 등 총 3개

서울시는 한강철도교, 조계사 석가불도, 순명비 유강원 석물을 7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강철도교는 1897년 공사를 시작해 1900년 7월 4일 준공된 한강 최초의 다리다. 조계사 석가불도는 대웅전 불상

뒤 마련된 탕화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로서 구도가 뛰어나고 인물의 형태가 개성 있게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명비 유강원 석물은 조선 제27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순종의 황후 순명효황후의 능이었던 옛 유강원 터에 남

아 있는 왕릉 석조각들이다. 순명효황후는 민태호의 딸로 세자빈에 책봉됐으나 순종이 임금이 되기 전 1904년에 사망해 유강원에 묘소를 마련했다가 순종이 세상을 떠난 1926년에 지금의 유릉(경기도 남양주시)에 옮겨가 함께 모셔졌다.

유강원 터에는 능 주위에 세웠던 20여기의 석조물이 남아 있다. 조선 말 왕실의 석조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ik1@

성신여대, 사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지정

2년간 총 20억 지원 받아

성신여자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 대학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학혁신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성신여대는 2년

간 총 20억원을 지원받아 ▲개방이사를 교·직원징계위원회에 필수적 포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설립자의 친·인척 선임금지 ▲개방이사 추가 선임 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6·25전쟁 용산대폭격 영상 국내 첫 공개

서울시 ‘7월 16일, 용산’ 기획 전시

서울시는 6·25전쟁 당시 용산대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용산의 모습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과 이를 편집한 영상 17점 및 사진 80점이다.

1950년대 6·25전쟁 직후 서울과 용산 일대 시민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자료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7일 용산도시역사관에서 ‘7월 16일, 용산’ 기획 전시를 개막한다.

1950년 7월 16일 미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 용산철도정비장과 용산기

지 일대를 대폭격한 영상부터 1951년 1·4후퇴 후 용산·서울역 일대 시민들의 모습,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서울이 유엔과 미군의 원조 아래 도로와 상수도, 병원 등을 세우며 도시 인프라를 복구해 나간 과정을 시간 흐름대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사이버대, ‘웹문학 독자되기’ 온라인 과정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웹시대를 맞이해 웹·문예창작학과와 웹교육원 공동으로 웹독자로서의 문학적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웹문학 독자되기’ 과정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수강대상은 유튜브, 웹소설, 웹툰 등 웹콘텐츠 감상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웹콘텐츠 작가가 되기 위한 기

본 소양을 익히고 싶은 이들이다. 강의는 ▲웹으로 문학읽기(김준현 교수·작가) ▲문학과 웹문학 재미있게 읽는 법(김용희 교수) ▲웹툰 재미있게 보는 법(박동선 작가/김병철 작가) ▲유튜브 백배 활용하기(박선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